

## 어려움을 이긴 과학자이야기 16

## 다재다능한 과학작가

## 아이작 아시모프

과학 大衆化의 旗手이자  
탁월한 未來과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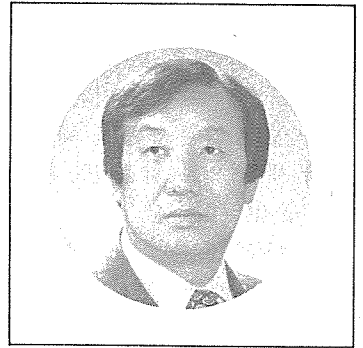
**다양한 작품영역** 아시모프의 작품의 세계는 정신의학에서 핵물리학과 유기화학, 외계에서의 서록 홈즈의 모험의 세계, 그리스 신화의 해석에서 미국의 건국 역사와 구약성서의 세속적인 설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특히 그의 정확하면서도 재미있는 과학해설은 과학대중화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 인류의 과학을 진흥하는데 수천명의 과학자 뒀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의 초기의 작품인 「은하제

아이작 아시모프(Issac Asimov)는 1938년 처녀작을 발표한 이래 그의 작품발표 건수는 해를 거듭할 수록 가속화되어, 1950~1960년간 출판된 저서는 32권이었으나 1960~1970년간에는 70권, 1970~1980년간에는 109권, 그리고 1980년대에는 이미 192권을 내놓았다.

기네스 북의 기록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저서를 낸 저작가는 5백권 이상을 펴낸 영국의 미스터리작가 존 크리지로 되어 있으나, 아시모프보다 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더 많은 저서를 낸 사람은 아직도 없다.



玄 源 福

과학저널리스트

국」 시리즈와 「로봇」 시리즈는 수천만의 어린이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펴게 해서 미래의 과학자의 꿈을 키워 주었다. 그는 또 과학의 미래를 꿰뚫어 본 탁월한 미래과학자이기도 하다. 1939년에 벌써 조립공장의 로봇트를 예언했고

1941년에는 이른바 「역사심리학」이라는 낱말을 만들어 수학적 분석을 통한 역사의 미래 추세를 예언했고 1950년에는 컴퓨터혁명의 미래를 내다봤다.

### 책벌레의 어린시절

1920년 소련에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시모프는 어렸을 때부터 「책벌레」였다. 2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온 그의 부모는 뉴욕 브룩클린에서 과자가게를 차렸다. 10살도 안되는 아시모프는 가게 한쪽에 차려놓은 서가에 잡지를 진열해 놓기가 바쁘게 달려가서 내용을 훑어보면서 외부세계의 정보를 게걸스레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시모프 소년에게는 책을 모두 읽고 난 뒤에도 책을 만진 흔적은 전혀 남겨 놓지 않는 신통한 재주가 있어 새 책으로 파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아시모프의 부모는 아들이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랐으나, 1940년 의과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은 뒤 보스턴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강사로 부임했다. 그러나 대학강사의 쥐꼬리만한 봉급으로는 첫번째의 아내와 두 아들딸을 부양하기에는 벅찼다. 그의 모자라는 가게는 SF 소설의 원고료로 보충했다. 이런 생활을 10년간 한 뒤, 1950년대초부터 그는 프리랜서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는



■ 1983년 처녀작을 발표한 이래 가장 多작을 낸 작가로 알려진 아이작 아시모프

생화학강사직은 결코 버리지 않았다.

### 퇴짜맞은 초기작품

아시모프가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은 10대 후반

부터였다. 1939년 3월호 「어메이징」지에 첫 SF작품인 「베스타에 남겨져서」를 발표한 이래 그의 작가생활은 시작되었으나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는 당시 SF잡지로서는 좋은 평판을 받고 있던 「안

노운」지에 2년간에 걸쳐 5편의 원고를 보냈으나 번번이 반환되기도 했다. 아시모프의 두번째 작품인 「마지막 무기」는 1939년 5월호 「어메이징」지에 실렸으나 원고료는 한 단어에 대해 1센트밖에 주지 않았다.

아시모프의 대표적인 SF작품인 「은하제국 시리즈(Foundation Trilogy)」의 발상은 참으로 우연한 기회에 떠올랐다. 1941년 어느날 「아우트스탠딩 SF」지의 편집장 존 캔벨을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그는 캔벨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SF 플롯에 관해 서로 의견을 나눈 뒤 그 플롯의 작품을 써 주곤 했다. 그런데 그날은 지하철을 탄 뒤에도 캔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비장의 수법을 쓰기로 했다. 요즘도 아시모프는 가끔 사람들에게 권하는 이 방법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가까운 곳에 있는 책을 아무렇게나 뒤져 아무 문장이나 한 절을 읽고 난 뒤 한참 생각을 집중해서 아이디어를 짜내는 방법이다. 그날 아시모프가 마침 들고 있던 책은 길버트와 셸리벤의 희곡집이었다. 책을 펼쳤더니 「이오란티」의 대목이 눈에 들어오면서 근위보병 1연대의 윌리스 2등병 앞에서 요정의 여왕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림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근위대에서 병사 그리고 군대와 봉건제도 나아가서 로마제국의 붕괴라는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번져나갔다.

아시모프는 캔벨을 만나자마자 곧 『은하제국의 붕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리하여 시작된 「은하제국 시리즈」는 7년간 계속되어 공전의 반응을 얻게 되었다. 21세에서 28세까지 모두 8편을 쓰는 동안 그는 일약 유명 SF작가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고 1950년대초에 3권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은하제국 시리즈」는 아직도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판을 거듭하여 출판되고 있다. 1966년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제24회 세계 SF대회에서는 지난 날의 최고의 시리즈로서 SF최고상인 휴고상을 받았다.

### 고소공포증 작가

올해 71세의 아시모프는 뉴욕시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를 내려다보는 고층아파트 33층에서 두번째 부인인 은퇴한 정신과의사 재넷여사와 함께 살고 있다. 아시모프의 행동반경은 수천권의 장서를 가진 서재에서 좀체로 벗어나지 않는다. 재넷여사는 서재에서 불과 12미터밖에 있는 테라스에서 작은 화원을 가꾸고 있으나 아시모프는 여태껏 한번도 그곳에 발을 옮겨놓아 본 일이 없다. 그는 「은하제국」에서 성간비행은 주저없이 다루면서도 비행기를 탄 경험은 평생 단 한번 있었다. 그것도 육군에 복무할 때 타라는 명

령을 거역한다면 군법회의에 회부될까봐 할 수 없이 했다는 것이다. 고소공포증에 걸린 그는 외국도시를 방문한 일은 전혀 없을 뿐아니라 미국내에서도 못가본 도시가 얼마든지 있다. 그는 현재 14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나 뉴욕시로부터 4백마일 이상 떨어진 곳의 대학에는 여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위의 제의를 거절해 버렸다.

그는 아침 7시부터 저녁 때까지 워드프로세서와 씨름을 하면서 작품제작에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낸다. 1977년에는 심장병으로 쓰러졌고, 1983년에는 관상동맥 바이패스수술을 받았다. 높은 콜레스테롤 음식을 매우 좋아하고 운동에는 별로 취미가 없던 그도 운동기계를 사서 크로스 칸트리 스키를 할 만큼의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 요즘은 식성도 바꾸고 몸무게를 50파운드나 줄였다.

### 다작의 비결

그런데 누구나 궁금해 하는 것은 그의 다작의 비결이다. 아시모프는 우선 다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일을 좋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쓰는 것 외에 다른 즐거움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가지 욕망속에서 살고 있으나 다작가가 되려면 그런 다른 여유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언제나 바라는 것은 쓰는 일 뿐 다

른 아무 것도 바라서는 안된다. 화창한 좋은 날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자연이 밖에 나와서 인생을 즐기라고 손짓하면 『에라 모르겠다. 글은 내일 쓰자』고 말한다. 다작의 꿈은 날아가 버린다. 이런 좋은 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찾아 와서 『산보하기에는 최고의 날씨예요』라고 말을 건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희망은 있다고 그는 말한다. 아시모프는 언제나 창문의 차양을 내려놓고 밖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 놓는다.

그런데 다작의 가장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는 귀뽕하고 있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돈을 딴 곳에 간수하면 된다. 방에서 쫓겨나면 새 타이프라이터를 사면 된다. 이혼을 당하면 다시 결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사라져 버린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더욱이 사라져 버린 시간은 인생의 최고의 값진 시간이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간은 더 나이를 먹고 닳아 버린 것이 될 것이기에.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고 다작하는 작가라면 나름대로의 비결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비사교적이 되어 전화선도 끊어버리고 편지의 답장도 쓰지 않는다. 어떤 작가는 가족을 싫어하고 어떤 작가는 5감을 폐쇄한 뒤 주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른체 글을 쓰

는 기술을 배운다.

그렇다면 아시모프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모든 일을 혼자 한다는 것이다. 조수도 비서도 타이피스트도 조사소도 에이젠트도 비즈니스 매니저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아시모프의 생각은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밖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들에게 때때로 자기의 바램을 설명해야 하고 또 이들의 행동도 체크해야 하며 틀린 것은 지적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할 때보다 시간이 3배나 더 걸린다는 것이다.

### 낙천가의 미래관

그러나 아시모프의 미래관은 매우 낙천적이다. 그는 요즘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 해결책은 나이 많은 시민들은 대학으로 돌려보내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환경에서는 평생교육에 익숙해져서 생애를 거의 마칠 때까지 창의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날로 심화되는 공기오염은 어떻게 해결할까? 밖에는 지금까지 나온 가장 효율적인 오염 방지 장치인 나무가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나무들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한다. 이보다 더 바람직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있을까? 삼림을 벌목하는 일을 멈추고 더 많은 묘목을 심는다면 문제는 쉽게 풀린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지구의 과밀한 인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달을 식민지로 만들고 우주스테이션을 건설한 다음 화성과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면 된다. 외계에는 무한정의 태양에너지가 있고 남아돌아갈 정도의 광물과 땅들이 있다. 은하로 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황당무계한 일은 아니다. 우리는 초기의 개척자들이 항해하던 대양이나 발견한 대륙보다 이미 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법을 찾아내지 못한 오늘날의 의료계의 무능에 대해서는 낙천적이 못되었다. 『이 병은 1665년 런던에서 腺페스트가 그랬던 것처럼 자멸해 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병은 그렇게 빨리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없어지자면 1세기는 걸릴 것 같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아시모프는 최근 「니메시스」라는 가명의 SF를 펴내는 한편 부인 재넷여사와 함께 친근한 로봇 「노비」를 주제로 어린이 책도 출간했다. 요즘은 부인과 함께 이웃 5번가의 쇼윈도우를 기웃거리기 위해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 많은 저서의 인쇄와 강사료수입은 달러화로 여섯자리는 넉넉해서 마음내키는 대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틈틈히 더블데이스터를 가서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무더기로 사들이기도 한다.